

## 참여연구원 칼럼

신진 북한연구자가 바라보는  
한국의 북한, 통일 연구

엄 현 숙 (북한대학원대학교)

나는 탈북 전 북한의 한 지방 도시에 있는 대학에서 8년간 김일성 혁명역사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로 있었다. 2016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통일 교육전공) 학위를 받았고, 전공은 북한의 교육과 통일교육이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통일교육센터 전문강사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내가 보는 한국의 북한 연구는 주로 북한교육, 북한 주민, 통일교육, 남북한 통합교육, 남북한 사회통합 등이다. 지금까지 나를 괴롭힌 여러 질문이 있다. 가령,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고,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의 편견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되지는 않겠는가? 북한, 또는 북한적 현상은 특수한 것인가? 북한만을 위한 이론 개발이 필요한가? 등등.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비단 북한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단 직접 가볼 수 없고,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해석이 연구자마다 달라진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북한 연구는 할 수 없는 것인가? 이는 나만의 고민도 아니고 북한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가 느끼는 고민일 것이다. 이러한 고민은 내가 왜 북한을 연구해야 하는가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통일을 위해, 아니면 평화를 위해,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위해? 아니면 탈북민 학자라는 사명감으로 출발한 것인가? 정말 그것도 아니라면, 나는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북한학이라는 학문은 미개적 분야에 대한 지적 탐구와 호기심도 있겠지만,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비롯된 일종의 의무감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 연구의 외연은 시간이 갈수록 분명히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 이슈는 정치, 군사, 경제, 외교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도 북한 사회,

도시, 주민, 일상, 남북한 주민의 마음 통합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과 흥미 있는 연구 주제들이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의 수가 많아지면서 과거에 문헌연구, 비교연구 등에 한정되었던 것에서 심층 면접, 참여관찰, 사례연구, 통계분석 등 양질의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탈북민 연구자의 시각으로 볼 때 많은 사회적 이슈들이 오픈되지 않은 채 시간의 흐름에 잠들어 있다.

북한 연구는 연구자 혼자만의 의지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연구를 위한 환경적 배려가 중요한 이유이다. 연구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연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준비되지 못한다면 연구의 질적 완성도를 기대하기 힘들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부 출연 연구비의 지원과 기관 지원, 연구재단의 지원을 들 수 있다.

정부 출연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해당 주제가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연구를 원한다. 그 방향성에 맞는 글이 아니라면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자연스럽게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의 연구가 진행된다. 그 과정에 분명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한 주제들은 다가설 자리가 없다. 그런가 하면 단기 과제들이 존재한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연구결과물을 요청하는 기관도 있다. 시기마다 정치적 이슈에 따라 정책 방향에 따라 연구의 주제는 달라진다. 연구 주제의 일관성, 역사성, 맥락적 흐름이 끊기고 나열되어 있다. 그래도 한국연구재단에서 나오는 다년 과제는 그나마 연속사업으로서 의미가 있다. 지속적해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깊이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다. 여러 문제를 제기할 수도, 느리지만 분명하게 목적의식적으로 연구의 장을 넓힐 수 있게 한다.

## 참여연구원 칼럼

통일은 영토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와 사회, 주민과 주민 간의 통합을 전제로 한다. 서로 다른 두 체제에서 성장한 주민 간 통합의 어려움은 충분히 언급되고 있다. 관련 사례들이 많이 읽히고 이슈화되고 공론화되어 정책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 사회를, 현재 정착한 탈북민 사회를, 그들의 적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적 차원의 연구 결과에 만족해야 한다. 쉽게 결과물을 생성할 방법에만 의존하다 보니 매년 같은 질문만 쌓여간다. 지금에 와서 문항을 고치려 해도 과거에 해 왔던 자료들과의 연속성을 핑계로 그마저도 어렵다. 시대는 분명 달라지는 데 설문지 문항은 예전 그대로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몇몇 학자 집단의 연구에 대한 열의는 의외로 높다.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한 연구자들끼리 꾸준히 모임을 하고 연구 주제를 정하고 발표하고 토론하며 서로의 생각을 피력한다. 그런가 하면 의기투합하여 교과서를 집필하고 논문집을 만들어 책으로 펴낸다. 척박한 연구 환경에서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 서로를 응원한다.

북한학 학자, 그리고 신진학자로서 느끼는 한국의 북한, 통일연구는 현재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급변하는 남북관계는 북한학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요구한다. 언제까지 과거의 안목으로 북한을 평가할 수 없다.

단골로 논의되던 자료의 부족이라든가 접근에 관한 이슈는 이제 문제가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북한은 주도적으로 세계에 그들의 뉴스를 공개한다. 과거 지원을 받던 대상에서 이제는 주변국에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요청한다. 북한을 드나드는 수많은 방문객에 의해 북한 관련 정보가 인터넷으로 보급된다. 과거 빈곤함의 상징이었던 북한으로부터의 이탈이 이주로 바뀌고 있다. 탈북민으로서 갖고 있던 정보는 아득한 예전 것이 되었다. 과거 북한의 1차 자료

만을 붙들고 행간의 의미를 읽어 내려가던 것에서 이제는 입체적으로 그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공간자료가 존재한다. 북한의 새 교과서가 전자책의 형태로 우리 앞에 와 있다. 과거의 목직했던 사전이 태블릿 안에 들어있다. 위성으로 장마당 개수를 파악하고 변화된 지형을 확인한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이행의 공식은 그대로라 할지라도 경로 의존적 현상들이 하나둘 이탈하고 있다. 김정은 동영상 모음이 SNS로 공유되고 친숙하다고 까지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 적국의 수령을 마주함에 있어서 그의 건강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세상이 도래했다.

미래지향적 통일관을 심어주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학교장들의 움직임도 보인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통일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는 장을 서둘러 준비한다. 저마다 북한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가고 있다. 서로가 변화된 남북한 정치정세에 민감하게 대처하며 앞날을 구상한다. 이런 환경에 북한학 연구, 통일학 연구는 과연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새롭게 떠오르는 질문이다.

우리의 시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자신을 검열해야 한다. 내가 하는 연구가 의미 있는 결과로 자리 매김 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 빠르게 잊히는 과거를 연구자료로 엮을 수 있도록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현재의 변화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닌 만큼 과거에 이를 언급했던 내용을 찾아 현재를 가늠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이와 같은 변화가 주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 변화를 대처하는 그들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빨리 읽어내야만 한다. 진정한 이웃으로 다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이를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 기획기사

## 왜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에 열광할까

직접 목격한 듯 생동감 있는 말과 행동으로 신뢰 높여

최 종 환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미국과 UN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평화협정 체결을 약속했다. 향후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수교' 마저 합의될 경우 한반도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로 들어설 전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82.4%(매우 만족한다 57.9%, 어느 정도 만족한다 24.5%)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16.5%였다(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8.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8.1%).

전 연령대에서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크게 높았다. 20대 82.6%, 30대 87.6%, 40대 90.8%, 50대 82.6%, 60

대 72.0%로 나와 대부분 80%이상 '만족한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 최대 난제(難題)이면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북핵 문제를 국민들이 '해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정치권도 들썩이고 있다. 6·13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했다. 강원도 고성군수에 출마한 후보는 동해북부선 철도 조기 추진과 금강산 관광 재개, 고성평화통일 특별자치도 지정 등을 내세웠다. 보수 정당 후보 역시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해 서해 남북공동어로 사업, 평화산업단지 조성 등을 구상하고 있다.

회담 직후 전국 유명 냉면집들도 뜻밖의 특수를 누렸다. 정상회담 이틀 뒤 서울의 한 평양냉면 전문점에는 점심시간 200명 넘는 손님들이 찾았다고 한다. 내수 부진에 허덕이는 우리 경제에 모처럼 활력이 솟는 모습이다.



<사진1>

지난 4월 27일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청와대)

### 직접 눈으로 확인한 정상회담

국민들과 정치권은 왜 남북정상회담에 열광할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2년 차에 열린 회담으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고, 한반도 정세가 개선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에선 정보 전달 방식

이 어느 때보다 진정성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베일에 싸였던 북한 지도자의 모습이 생생하게 전달됐다는 점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 기획기사

일반적으로 정보 전달은 의사소통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단순히 정보를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감정과 상상, 생각 등의 전달로도 소통은 가능하다. 이 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메시지에서부터 받은 '인상'이다.

인류학자 그레고리 베이츠슨은 “대화에서 표현 자체 뿐 아니라 표현을 둘러싼 목소리·제스처·얼굴표정 등의 속뜻까지 헤아려야 소통이 된다”며 “대화하는 시늉만 내고 상대의 속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 “남측으로 오시는 데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을까요?”(미소를 보임)**

**김정은 위원장 : “그럼 지금 넘어가볼까요?”(문 대통령 손 잡음)**

1년 전만 해도 서로 총부리를 겨누며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지만 미소를 머금은 두 정상은 화해와 평화의 언어로 말문을 열었다.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사상 최초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 땅을 밟는 장면은 전 세계

에 생방송으로 전달됐다. 특히 회담 모습을 TV화면으로 지켜 본 국민들은 두 정상이 말한 메시지의 깊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진정성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아 멀다고 말하면 안되겠구나” 같은 친근한 언어는 딱딱한 회담 분위기를 녹이는 데 감초같은 역할을 했다. ‘은둔의 지도자’, ‘공포 정치’로 표상된 북한 지도자에 대한 이미지가 서서히 희석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MBC>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달 29일과 30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보인 행동이나 발언에 신뢰가 가느냐’는 응답에 ‘매우 신뢰가 간다’가 17.1%, ‘대체로 신뢰가 간다’ 60.5%로 긍정평가가 77.5%였다.

정상회담 당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만남 후 악수와 ‘10초 방북’ 장면은 외신들에게도 인상적이었다. 경기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의 메인 프레스센터(MPC)에 있던 내외신 취재진 3,000여 명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른 모습도 전파를 탔다.

### 비언어적 행위가 신뢰 높여

심리학자 메러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메시지 전달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에서 단어가 7%, 목소리 크기가 38%인 가운데, 얼굴표정과 자세, 제스처 등 비언어적 행위가 55%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생동감 있는 비언어적 행위가 정상회담을 지켜본 국민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실례로, 북한의 군 수뇌부인 리명수 총참모장과 박영식 인민무력상은 문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했다. 북한의 고위급 장성이 남한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 수행단 간 거리낌 없는 악수와 기념촬영 등도 두 나라의 화해를 보여준 전환기적 장면이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복장과 얼굴 표정, 제스처 등을 유심히 살펴보면 오해와 편견, 고정관념이 해소됐다는 분석이다.

그중 도보다리에서 밀담 형식으로 나눈 1:1정상회담은 ‘백미’로 꼽힌다. 30여 분 간 진행된 이 회담에서 두 정상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심각한 표정을 짓거나,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김 위원장의 모습은 상대에게 경청한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기에 충분했다. 이 모든 과정을 직접 보고 평가한 국민들은 가공되거나 편집되지 않는 뉴스를 접한 것보다 훨씬 더 신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으로 얽히고설킨 한반도 문제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했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감격과 흥분 속에서 남북한은 또 다른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 종전협정과 평화체제를 판가름할 북미정상회담이 남았다. 화해와 평화의 언어로 70년 간 쌓인 북미 적대 관계를 청산하길 기대한다.

<사진2>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보다리’에서 산책하며 친교의 시간을 갖고 있다(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 본 기사는 5월 2일 <오마이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 연구성과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 출신자와 사회 만들기: 호혜성과 환대의 가능성.  
《문화와 정치》 제 5권 제 1호 (2018)

반공시대의 귀순용사로 환대받았던 북한 출신자들은 냉전 종식과 북한의 경제난, 그리고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최근에는 경제이주자로 명명된다. 하지만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분단 이데올로기와 분단적 정서구조는 이들과의 새로운 공동체 구성을 모색하기보다 ‘특별한’ 이주자로 구별해왔다. 한국사회는 이들을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차별과 동시에 ‘특별한’ 지원의 대상으로 단순화하였다. 적국 출신자를 향한 차별기제와 동시에 적국을 ‘배반’했다는 이유에서 이루어지는 정착 지원은 표면적으로는 정반대의 목적과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그 이면의 작동 원리는 이들과의 사회적 관계 구축을 교환 관계로만 환원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출신자와의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호혜성의 근간 없이 ‘교환’으로만 점철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출신자를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 환대하려는 윤리적 전환이 절실한 것이다. 분단을 넘어선 호혜적 관계의 복원은 단순히 당위적 명제가 아닌, 북한 출신자와의 ‘사회 만들기’의 시작점이다.



채석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미디어, 일상, 환대: 매개된 타자와 적절한 거리 만들기.  
《문화와 정치》 제 4권 제 3호 (2017)

이 글은 실버스톤의 ‘적절한 거리’ 개념을 적용하여, 한국 사회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약자인 저학력 빈곤 여성들을 어떻게 환대할 것인지 성찰한다. 먼저 실버스톤이 어떻게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학을 현대 미디어 문화정치에 접목하였는지를 논하고, 이를 통해 매개된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를 만드는 환대의 실천 전략으로 ‘적절한 거리’ 개념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서울의 한 청년실업센터를 통해 만난 세 명

의 저학력 빈곤 여성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이들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는 것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거리’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사용은 이러한 경험들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탐사한다. 결론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 거리’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요소임을 역설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윤리적 주체의 복원을 요청한다.

## 연구단 동정

▶ 5월 11일(금), 북한대학원대학교 회의실에서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5월 정기 콜로키움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영남대학교 주형일 교수를 초청하여 “68혁명과 상황주의 인터내셔널”에 관한 특강을 듣고, 개인과 공동체가 일상생활에서 타자화 되지 않고 주체로서 ‘상황’을 구축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남북한 사회가 통합되고 다양한 주체들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새로운 ‘상황’, ‘통합된 마음체계’를 구축하는 것의 가능성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들도 제기되었습니다.



◀ 6월 1일(금) 전북대학교에서 한국정치정보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정치정보학회와 본 연구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유관 기관의 특별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학회에서는 본 연구센터의 공동연구원인 박주화(통일연구원, “정체성의 분화와 통일인식: 민족정체성과 남한정체성을 중심으로”), 엄현숙(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의 대외커뮤니케이션 방식 연구: 조선신보를 중심으로”)의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주화 박사는 현재 대한민국(남한)에 거주 중인 일반인들의 정체성 및 정체감의 분화에 따라 통일지향성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남북한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일인식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엄현숙 박사는 고난의 행군 시기 말미인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조선신보』를 중심으로 북한 대외 커뮤니케이션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심리적/물질적 ‘결핍’에 대해 이야기하였다는 점과, 이 시기 동안 북한 주민들의 결핍에 대한 마음과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연구단 동정

■ 6월 16일(토), 연세대학교에서 2018년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학회에서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는 “탈북여성의 젠더화된 일상과 재현”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을 주관하여, “성서비스 영역에 참여한 탈북여성들의 경험과 생존전략(권금상,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탈북여성의 모성 실천: 전유와 전복의 수행성(김지연, 연세대)”, “The exchange Value of a Story: The Myth of the Women Defector in The Orphan Master's Son(신해린, Vanderbilt University)” 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실험과 실천

▼ 5월 8일(화)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회의실에서 “North Korean Mobility and Transnational Network”를 주제로 김성경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의 특강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Roanoke College 학생들이 함께한 이번 특강에서는 본 사업단에서 진행된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해 듣고, 향후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한 남북한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 및 남북한 통합 연구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5월 19일(토), 본 연구사업단과 DMZ국제다큐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다큐로 만나는 남북한: 지금을 살아가는 마음들” 정기상영회(3회차)가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홀에서 실시되었습니다. 5월 정기상영회에서는 다큐멘터리 “나는 선무다(I Am Sun Mu, 감독: 아담 쇼버그)”의 상영과, 최순미 박사(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가 주관하는 GV가 진행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자 화가인 ‘선무(가명)’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한 환경과 삶에 대해 다룬 이번 영화를 계기로, 북한과 분단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6월 16일(토), 『나는 북한에서 온 전학생』의 저자인 허순영 작가와 우리 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인 엄현숙 박사가 정독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북촌문학산책(BOOK村문학산책)의 일환으로 북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북에서 온 전학생 ‘민철’이 남한에서 겪게 된 크고 작은 소통의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분단이 우리 마음 안에 만들어낸 경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향후 일정



◀ 본 연구사업단에서 초청, 주관하는 연극 《탈북자》가 6/22(금)~6/23(일), 대학로 '설치극장 정미소'에서 상연됩니다. 대만의 저명한 연출가인 왕모링(王墨林)이 작/연출한 이번 연극은 식민지와 냉전, 신자유주의로 상징되는 아시아의 근현대사를 조명한 것으로, 한국과 대만, 말레이시아, 일본 예술가들이 신체 퍼포먼스, 비디오아트로 '학살의 기억'을 그린 작품입니다. 본 공연을 비롯하여 공연 전 사전포럼("학살의 기억: 아시아 근현대사에 관한 철학적 서사시", 일시: 6/19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서울 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이 문화연대와외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니, 두 행사 모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6/30(토) 오후 2시, 본 연구사업단과 DMZ국제다큐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다큐로 만나는 남북한: 지금을 살아가는 마음들” 정기상영회(3회차)가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홀에서 개최됩니다. 6월 정기상영회에서는 다큐멘터리 《황색바람(Yellow Wind, 감독: 조현준)》의 상영과, 조현준 감독과 최순미 박사(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가 참여하는 GV가 진행됩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남한 사회에 적응해나가는 20-30대 탈북자들의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북한 인권을 위해 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한의 자본주의에 익숙해지는 탈북자들의 모습을 그리는 것과 동시에 자본주의 삶의 어두운 단면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작품입니다.



## 언론 속의 심연북한연구소

### 인터뷰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문정인 특보는 비정치인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우리 사회 얘기를 한 것이다. 공격받을 소지도 있지만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미국에서 먼저 거론했던 내용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주한미군 주둔 문제가 예민한 문제는 맞다. 중국하고도 연결돼 있다. 중국도 주한미군에 대한 걱정이 많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담 의제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거론하지 않자 오히려 중국이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간 측면도 봐야 한다”며 “이런 이슈에 대해 미국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 특보가 철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논란이라고 하는 것이 넌센스”라고 말했다.

이우영, “문정인 특보를 위한 변명” / 미디어오늘 2018.05.02.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성경 교수는 자신이 조중접경지역에서 만난 북한여성들과 조선족 여성들 간의 ‘연대’의 성격과 ‘대안가족’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을 이야기했다. ... (중략) ...

김성경 교수는 이들을 “안과 밖, 경계를 횡단하는 여성들”이라고 칭하며, 자신의 연구 대상자 사례를 공유했다. 북한에서 이탈한 후 중국과의 접경 지역인 조선족 자치구에서 지내는 여성들의 이야기다. 주로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삶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중국에서 쓸 수 있는 의료시술을 배워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한 사례. 한국은 답답하고 제한이 많아서 불편하다며 불법적인 신분이더라도 중국에서의 삶을 선택한 사례도 전했다. 경계를 횡단하는 북한이탈여성들과 조선족 여성들 사이에는 “그런 과정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는 여성들의 연대가 눈에 띄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성경, “분단과 북한여성의 삶에 주목하는 페미니즘 시각” / 일다 2018.05.07.

... 북한은 비핵화의 대가로 “미국 핵 전략자산의 한국에서의 철수”, “한미 전략자산 훈련 중지”, “재래식 및 핵무기 공격 포기”,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북한의 한미동맹 인정과 수정이 폼페이오 내정자가 종이몽치에 더하고자 하는 것일 수 있다. 미국의 매티스(J. Mattis) 국방장관은 2018년 4월 27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미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의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과 미국은 ‘최소 비핵지대화’인 핵 관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북한 비핵화와 교환할 수 있다. ‘최대 비핵지대화’는 한미동맹에 따라 미국이 남한에 제공하는 핵우산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로, 이 의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갑우, “‘판문점 선언’ 3항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 / 한겨레21 2018.05.10.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판문점 선언 제3항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에 언급한 남북 최초의 합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3항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획득했으며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바뀌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호평했다.

이우영, 구갑우, “남북경협, 주변국도 이해관계 공유 다자프로젝트로” / 연합뉴스 2018.05.15.

## 언론 속의 심연북한연구소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 노선 전환과 국교 정상화, 국제기구 가입은 중국의 개혁·개방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다”며 “북한의 4·20 전원회의 결과를 개혁·개방 선언이라고 본다.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가는 길이 중국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짚었다. … (중략) …

구갑우 교수는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개혁·개방을 하려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필수라고 짚었다. 구 교수는 “미국과 관계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국제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렵다”며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경제 특구·개발구에서 외국 자본 유치에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국제 경제 영역에서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곧 미국)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갑우, “김정은식 개혁·개방 3종세트, 북미회담으로 탄력받나” / 한겨레 2018.05.20.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이 제재를 완화 혹은 해제시켜주는 것만으로도 북한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지난해 11월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재지정한 테러지원국을 해제하면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국제금융기관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북한은 2000년 8월 ADB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국제테러지원국이라며 미국과 일본이 반대해 무산됐다. ADB는 회원국에 한해 자금을 지원한다.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 후 적절한 시점에 미국이 제재를 풀어주고 북한의 국제금융기관 가입도 주선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양문수, “김정은의 ‘경제개선’ 본심 개혁·개방의 행로” / 중앙일보 2018.05.26.

그래서다. 이제는 북-미 협상과 별도로 유엔을 비롯한 다자적 차원에서 북 체제 안전 보장 방안에도 눈길을 돌려야 한다. 북한이 실제 비핵화 과정에 들어가면, 중국이 강조해온 6자회담도 재개될 수 있다. 6자회담이 북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북아 다자안보 틀로 기능하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을 동북아 차원의 다자안보 협력체제 형태로 전환하는 것도 고민해볼 때가 됐다.

구갑우, “‘트럼프 리스크’에 널뛰는 한반도 평화” / 한겨레21 2018.05.27.

## 칼럼

문제는 지도자 개개인에 의해 형성된 한반도 평화 기회가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정상회담 취소라는 해프닝에서 드러나듯 각 지도자의 ‘마음’에 따라 결정된 것들은 그만큼 쉽게 번복될 수 있다. 게다가 설혹 그들이 합의에 이를지라도, 각국의 정치체제로 제도화되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견된다. 지도자가 주도하는 협상은 빠른 결정과 과감한 결단이 가능하지만, 국내정치와 국제관계라는 공고한 시스템의 거센 반격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어렵사리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한 남·북·미의 미래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역사의 우연을 ‘현실’로 안착시키기 위한 ‘진짜’ 싸움은 아마도 협상 이후부터 본격화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김성경, [야! 한국 사회] 트럼프, 김정은 그리고 문재인 / 한겨레 2018.05.30.

## 칼럼 연재 : 책의 마음, 마음의 책



## 우리의 시선(視線)은 인식의 복사(複寫)를 넘어설 수 있을까?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이성형 (2003), 까치

구 갑 우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성형의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이하에서 <콜럼버스>)에서 인용하고 있는, 아메리코 베스푸치가 아메리카를 발견하는 장면을 그린 판화의 아래에 쓰여 있는 글귀다: “아메리쿠스가 아메리카를 재발견하다. 그가 그녀를 불렀더니, 그 후 항상 깨어 있더라.” 이성형의 <콜럼버스>는 이 그림과 글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유럽은 정복자 남성이고, 그늘에서 잠자고 있던 아메리카는 정복당하는 나체의 여성”임을 읽어낸다. 지금과 다음에 <콜럼버스>를 마주한 이들은 그 책의 서평에서, “한국의 ‘정치학자’ 이성형이 라틴 아메리카를 경유하여 서구를 재발견하다. 그가 그녀를 불렀더니, 그 후 항상 깨어 있더라.” 라는 촌철(寸鐵)의 문장을 보게 되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콜럼버스>를 잘못 읽은 서평문이거나 또는 비극적 인식의 서막일 수 있다.

<콜럼버스>를 관통하고 있는 사고는, ‘반(反) 오리엔탈리즘’이다. 즉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항대립적 인식을 토대로 서구 이외의 지역을 야만으로 타자화(他者化)하는 논리에 대한 비판이다. “지식은 지정학(地政學)의 산물”이라는 일갈은 실증적 자료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콜럼버스보다 80여 년 전에 이루어진 중국 명나라 정화의 남해대원정,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르네상스로 연결되는 철도가 아랍-무슬림(-유대) 역을 지나 스페인-포르투갈 역을 거쳐야 했다는 사실, 흑인노예들과 그 후손들이 이루어낸 아이티 혁명, 라틴 아메리카의 아카폴코와 아시아의 마닐라를 잇는 세계체제 등등 이른바 정사(正史)에 들어 있지 않은 역사적 사실의 복원은 <콜럼버스>의 반오리엔탈리즘의 시각을 돋보이게 한다. 이 과정에서 서구에서 진보적 학자로 평가되는 브로델이나 월러스틴의 서구중심주의적 한계도 드러나게 된다.

역사적 사실의 복원과 더불어 오리엔탈리즘의 논리구조를 벗겨내는 작업 또한 압권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노예론, 기독교적인 정의의 전쟁론, 그리고 스페인이 새로이 발명한 국제법 속에서 스페인의 군사적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찾아낸다. 특히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국제법이 어떻게 신세계를 지배하고 재정복하는 타자화 논리로 전환되었는가를 밝히는 대목은, 현재에도 유의미한, “세계시민의 의사소통의 권리”를 명문화한 국제법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콜럼버스>는 과연 의사소통의 권리가 원주민들에게도 주어졌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결국 ‘누가’ 그 권리의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만약 정복자들이 일방적으로 그 권리의 소유 여부를 결정한다면, 의사소통권은 형식적인 평등원리에 불과하게 된다. 국제법의 탄생이 16

세기 르네상스의 성과 가운데 하나지만, 그것은 원주민을 타자화하는 보다 세련된 식민주의 타자화 논리였다는 것이 <콜럼버스>의 주장이다. 인디오가 말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 평등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원주민 보호를 주창한 신학자조차도, 콜럼버스의 실수로 명명된 ‘인디오’라는 단어를 포기하지 않음을 보면서, “인디오는 지배와 훈육 또는 선량한 통치의 대상이었고, 그 영혼은 정복되어야만” 하는 대상이었음을 읽어 내는 장면에서는, 이른바 서구의 진보가 가지는 근원적 한계를 들추어내는 멋진 솜씨를 엿볼 수 있다. <콜럼버스>의 주장처럼, 이름 붙이기는 권력현상에 다름 아니다.

결국 <콜럼버스>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방법적 회의의 극한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를 이끌어낸 데카르트의 철학적 고투(苦鬪)가 신대륙의 발견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속에서 서구인의 자기정체성 확립을 위한 몸부림이었음을 알게 된다. 서구인은 신대륙의 타자를 통해 자기를 재발견했고, 그들을 길들이기 위해 문명과 야만, 문화와 자연, 자아와 타자, 남성과 여성, 유럽인과 인디오와 같은 이항대립을 생산했다. 즉 서구의 근대적 담론의 뼈대는 신대륙 원주민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서구인이 설파했던 계몽과 진보는, 서구의 밖에 존재하는 ‘그들의 후진성’을 전제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서구의 역사학과 사회과학에서 그 후진성을 연구하는 ‘동양학’과 ‘인류학’은, 농업문명의 단계에서 정체된 동양과 역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학문이었다 (박한제 외, <유라시아 천년을 가다>).

강제로 서구와 마주치게 되어 이른바 개항을 하게 되었을 때 스스로 문명의 계서를 내면화해 버렸던 우리에게, 서구식 사회과학의 분과체계가 고스란히 남아 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정치학자로 분류되는 이성형이 <콜럼버스>에서 보여주는 분과학문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글쓰기는, 서구로부터 수입한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이 사회과학의 분과체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인 동시에 사회과학과 역사학의 재결합을 추진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과학계의 깊은 자기반성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자의 글쓰기가 고식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제도가 그 틀을 고무,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성형이 <콜럼버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글쓰기가 몸과 정신으로 서구적 인식과 “우리안의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려는 지적 투쟁의 소산이라면, 과도한 평가일까.

## 칼럼 연재

<콜럼부스>가 제시하는 대안 또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대안의 기초인 비판에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다. 멕시코에서 벌어진 인류 최초의 제노사이드-추정치이지만 1518년 2,510만이던 멕시코 인구가 1622년에는 75만명으로 감소-를 보며, 이것이 정의의 전쟁의 이름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한다. 신대륙이 생산하는 커피가 “소비자에게는 미각과 즐거움을 제공하지만, 생산자들에게는 항상 빈곤과 폭력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을 보며, 신자유주의의 교리가 운데 하나인 자유무역이 커피 농가에게 “대모 아니면 게릴라”를 선택하게끔 하고 있다는 주장을 도출하기도 한다. 1kg에 10센트인 원두가 도시의 매장에 나오면 8달러에 팔리는 현실에서 자유무역은 커피 농가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하는 독재적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서구인에게는 미각자본주의의 달콤한 계기인 설탕의 역사가 신대륙의 사람들에게는 노예제에서의 해방의 역사라는 시선의 전환은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콜럼부스>는 서구인의 자기반성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인의 삶 속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공부와 사회운동에서 대안을 찾는다. 우리의 교과서에 언급되기에는 너무도 낮은 쿠바의 학자 오르티스, 아르헨티나 태생의 철학자 두셀 등의 말을 들어보자. 오르티스는, “낮은 문화가 우월한 문화에 적응한다는 지배자들의 문화접변 시각을 단연코 거부하고, 문화란 ‘주고받는’ 과정이며 잡종화와 상호변용의 과정”임을 역사 속에 끄집어낸다. 두셀은, “타자의 고통과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하는 윤리의식의 가능성을 믿”으며, 타자의 이성과 대화하고 그들의 논리를 공동체가 받아들이는 트랜스-모더니티(trans-modernity) 프로젝트를 통해 “분열된 세계의 화해”를 모색한다. 1994년 최초의 ‘포스트모던 혁명’을 일으켰던 사파티스타는, 빵과 토지뿐만 아니라 원주민 문명의 존엄성을 외쳤다. 혁명이론 대신 공동체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유토피아적 갈망을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이성형의 지적처럼, “사파티스타들은 존엄성, 윤리 그리고 신화를 현대정치 아젠다로 복원시켰”다. 라틴 아메리카인들의 해방의 기획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방식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 처음의 문제제기로 돌아가 보자. <콜럼부스>의 반오리엔탈리즘은 옥시덴탈리즘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에서 그친다면, 더더욱 독자는 옥시덴탈리즘을 상상할 가능성이 높다. <콜럼부스>가 저변에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도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할 때, 옥시덴탈리즘의 유혹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지. 동아시아의 경제사가 서구적 궤적을 밟지 않았단지 또는 18세기말까지는 중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이었다는 논의는 이제 ‘상식’이 되어 가고 있다. 프랑크(A.G. Frank)의 <리오리엔트>는 동아시아의 근대를 유럽중심적 사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대안적 사관에 입각한 실증이 21세기 동아시아 시대를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콜럼부스>도 중국의 해양 진출과 은과 설탕의 무역을 통해 성립된 아시아 중심의 세계체제를 예시하면서 은연중에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하고 있다. 필자는 이 추론이 무리하고 생각한다. 역사의 재구성이 곧 미래의 역사를 쓰는 작업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중심적 사관에 대한 반성이 그 상대방을 중심으로 한 사관으로 이어진다면, 서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와 그들의 이항대립을 반복하는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즉 <콜럼부스>는 한편으로는 옥시덴탈리즘에 함몰될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콜럼부스>에서는 오르티스와 두셀의 논의 그리고 사파티스타의 저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항대립을 넘어서는 인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담겨 있다. 필자는 <콜럼부스>가 도달한 지점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의 복원을 위해 문화적 상대주의는 필요하지만, 자칫 문화적 상대주의는 서구중심적 인식의 복사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콜럼부스>는 인식의 복사를 야기할 가능성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 설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망스럽기도 하다.

탈식민적 글쓰기가 식민적 글쓰기와 동일한 논리구조를 가지게 될 수 있다. 서구가 동양과 라틴 아메리카를 타자화했던 인식론을 답습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아(我)와 피아(彼)를 구분하면서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에서 활동하는 조선인 학자 강상중(姜尙中)이 지적하듯, “문화의 타자에게 열등하고 주변적인 위치밖에 부여하지 않는 다층적인 이항대립의 강제(이성/비합리성, 합리성/정념, 문화/자연, 남성/여성, 식민자/피식민자, 백인/흑인, 고급문화/저급문화)를 해체”할 때만이, “오리엔탈리즘의 저편을 조망할 지평이 열릴 것이다.” 즉 이항대립의 한 축, 즉 열등한 쪽에 설 때, 그 열등한 주체들을 재현할 수 있다거나 또는 특정한 시각만이 그 주체가 말할 수 있게 한다는 배타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는 인식의 복사는 또 다른 힘의 정치만을 야기할 뿐이다. 충돌이 아닌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민주적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인식론적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주의를 경유하여 다시금 보편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인식의 회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필자는 이성형이 <콜럼부스>의 후속 작업에서 한 걸음 더 내딛기를 소망한다. 그 길의 끝이 설사 낭떠러지일지라도 누군가는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즐거운 독서였다.